

이젠 파리 패럴림픽...태극전사 '감동 드라마' 2막 열린다

29일 개막 17개 종목 177명 참석...광주·전남 8개 종목 24명 출격 금 5개·20위권 진입 목표...탁구·보치아·사격 등 금빛 활약 기대

태극전사가 선보일 열전의 무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오는 29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의 개막식이 펼쳐진다.

파리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이번 개막식은 패럴림픽의 공식 엠블럼인 아지토스(Agitos)가 걸린 개선문과 콩코드 광장을 잇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치러진다.

토니 에스탕에 파리 2024 위원장은 "파리 심장부에서 열리는 이번 개막식은 패럴림픽을 처음 개최하는 프랑스에서 장애인 포용 문제를 우리 사회의 중심에 놓겠다는 우리의 야망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며 이번 개최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패럴림픽에는 182개국 4400여명이 참가해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메달 경쟁을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17개 종목 177명의 선수단이 파리로 향했으며 그 중 광주·전남에서는 8개 종목 24명의 선수단이 출격한다.

탁구 김경건(Class 4·광주시청)과 사이클 이도연(H4·세종스포츠진흥회)과외원이 한국 선수단 남녀 주장을 맡았고, 카누 최용범(KL3·도원아이스)이 개 폐막식 기수로 선발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5개(탁구3, 보치아1, 사격

1) 이상의 금메달 획득과 종합 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금2·은10·동12 총 24개 메달 획득, 종합 41위에 그쳤다.

1988 서울 대회 이후 2008 베이징 대회까지 6회 연속 두 자릿수 금메달을 따냈던 한국은 2012 런던 대회 9개(종합 12위),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7개(종합 20위), 2020 도쿄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 획득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대표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선수가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한국은 배드민턴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펜싱 권효경(홍성군청), 탁구 윤지유(성남시청) 등 젊은 피들의 도약으로 세대교체를 시도한다.

금빛 활약이 기대되는 종목은 가장 많은(17명) 선수가 출전하는 탁구다.

특히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 3관왕에 오른 서수연(Class2·광주시청)과 2관왕을 차지한 주영대(Class1·경남장애인체육회)가 단식 정상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 서수연은 여자 단식·복식, 주영대는 남자 단식 경기에 참가한다.

또 패럴림픽 효자종목인 보치아 대표팀이 이번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분단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럴림픽에서 '10연패 달성'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1988년 서울 대회 정식 종목 채택으로 패럴림픽에 첫 발을 디딘 한국 보치아는 이후 매 대회마다 1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광주의 강선희(BC3·한전KPS)는 2023 홍콩 월드보치아 선수권에서 BC3 혼성 금메달을 합작한 정호원(BC3·강원장애인체육회)과 이번 대

회에서도 호흡을 맞춘다.

정호원은 이번 대회 출전으로 5번째 패럴림픽에 나선다.

보치아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에서 10연패를 이룩한 여자 단체 양궁팀의 기세를 이어 10연속 금메달을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2024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에서 총 19개(금10·은5·동4) 메달을 따내며 종합 우승을 차지한 사격 대표팀, 1996 미국 대회 이후 28년 만

에 패럴림픽 무대를 밟는 골볼 대표팀 등의 경기도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다.

이번 2024 파리 패럴림픽은 오는 9월 9일까지 12일간 펼쳐지며, 9일 오전 4시 폐막식이 예정돼 있다.

한국의 첫 경기는 오는 29일 오전 8시30분 포르드 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단·복식 조별예선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패럴림픽 효자종목 '보치아' ...양궁처럼 10연속 금 도전

정호원·강선희 등 6명 출전

올림픽 양궁처럼, 패럴림픽에도 한국 선수단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 바로 보치아다.

보치아는 올림픽에서는 볼 수 없는 장애인 스포츠다.

선수들은 가로 6m, 세로 12.5m 크기의 경기장에서 6개의 빨간색 공과 6개의 파란색 공을 표적구(흰색 공)에 던지거나 상대보다 가깝게 던질 경우 1점씩 얻는다.

개인전과 페어(2인조) 경기는 4엔드, 단체전 경기는 6엔드 점수를 합산해 승자와 패자를 가린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보치아는 1984 뉴욕-스토크맨더빌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한국은 1988 서울 대회부터 2020 도쿄 대회까지 9차례 연속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보치아 대표팀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임광택 감독이 이끄는 보치아 대표팀은 강선희(한전KPS), 김도현(충남보치아직장운동경기부), 서민규(안산시장애인체육회), 정성준(경기도장애인보치아연맹), 정소영(충남장애인보치아연맹), 정호원(강원장애인체육회)으로 꾸려졌으며 이들 6명의 선수가 남녀 개인전과 페어, 단체전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공식 훈련을 한 보치아 대표팀은 10회 연속 금메달 잇기에 성공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임광택 감독은 "그동안 사전 캠프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현지 적응을 마쳤다. 선수들의 의지도 대단하다. 올림픽 양궁(여자 단체전) 10연패를 시정하며 '우리고 해내자'고 다짐했다"며 "개인 6개 종목과 페어 3개 종목, 단체전 8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치아 국가대표 강선희(왼쪽)와 정호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혔다.

보치아 대표팀 중 가장 기대를 모는 선수는 에이스 정호원이다.

정호원은 지난 4번의 패럴림픽에서 총 6개(금3개, 은2개, 동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도쿄 패럴림픽에선 페어에서 우승했다.

정호원은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면서 10연패 도전에 성공했는데, 나도 출전하는 2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모두 따서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

했다.

만 47세의 나이로 첫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강선희는 정호원과 페어 종목과 여자 개인전에 출전한다.

그는 "처음엔 10회 연속 금메달 중책을 맡아 부담이 많이 됐는데, 생각해보니 큰 기회인 것 같더라. 긍정적으로 생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콩 월드보치아에서 금메달을 딴 두 선수는 이번 대회 페어 종목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첫 경기는 9월 2일에 열리고, 5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꿈나무, 전국볼링대회 맹활약

광주체고 김성혁·윤지훈 등 금

광주·전남 꿈나무 볼러들이 26일 경북 상주월드컵볼링경기장에서 끝난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에서 금2·은2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고 김성혁·윤지훈은 남18세이하부 2인조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성혁이 4게임 합계 971점(평균 242.8점), 윤지훈이 927점(평균 231.8점)을 획득해 총 1898점(평균 237.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성혁은 남18세이하부 마스터즈 2위에도 올랐다.

김성혁은 남18세이하부 개인종합 5위로 개인종합 상위 10명이 순위를 가리는 마스터즈 경기에 진출한 뒤 10게임 합계 2344점(평균 234.4점)을 기록하며 1위와 6핀 차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3월 광주체고로 전학을 온 김성혁은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김성혁은 "동호회에서만 활동하다가 제대로 볼링하고 싶어서 동신고에서 광주체고로 전학을 왔다. 이번 대회에서 마스터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예상보다 결과가 좋아서 은메달까지 획득하게 됐다"며 "앞으로 열심히 볼링하면서 국가대표까지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체고 오기철 감독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시합 준비를 잘 해온 결과인 것 같다. 다가올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정여고 고민서·김예은은 여자 18세 이하부 2인조전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고민서는 4게임 합계 936점(평균 234.0점), 김예은은 826점(평균 206.5점)을 기록하는 등 총 1762점(평균 220.3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대학부 5인조 전에서는 김이현, 진현규, 이준서, 변준현, 윤승현, 오은빈으로 구성된 전남과 현대 선수단이 6게임 합계 6739점(평균 224.6점)으로 2위에 올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유당 최상욱선생 추모기념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 성료

광주서석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유당 최상욱선생 추모기념 2024 광주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4·25일 치러진 이번 대회는 검도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유당 최상욱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70여개 도장 500여명이 참가해 개인전 8개부, 단체전 6개 부문에서 기량을 뽐냈다.

단체전에서는 초등중학년부 광주 오지검도관, 초등고학년부 광주 진성검도관, 청소년부 광주 오지검도관, 남자 청·장년부 광주 국대검도관, 남자 중년부 경남 사천검도관, 여자부 경기도 박연정검도관이 우승했다.

개인전 우승은 초등중학년부 엄정우(경남 사천검도관), 초등고학년부 김민승(경남 사천검도관), 여자청소년부 오승연(광주 국대검도관), 남자청소년부 김수혁(전남 벌교검도관), 여자청·장년부 석윤미(대구 학부재검도관), 남자청·장년부 안보현(광주 국대검도관), 여자중년부 이동해(세종 TOP검도관), 남자중년부 진성식(경남 거제검도관)이 차지했다.

오형석 광주시검도회장은 "전국 검도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검도의 전국적인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자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토)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